오늘의 게시판

광주 시민의 날 기념 민주의 종 타종식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종각

행사

〈1일〉

▲제 41회 광주 시민의 날 기념 민주의 종 타종식=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종각. 기념식 오전 11시 시청 야외음악당.

▲제 409주년 명량대첩기념 2006 진도아리랑축제=오전 11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내고장 자랑대회(2일)·제 9회 세계평화제(4일·평화기원제, 혼 건짐·혼달랩 공연, 상여놀이 경연 등)·제 15회 한국진돗개품평회(4일)·제 20회 논배미축제(4일·추수가 끝난 논에서 호박이고 달리기·짚공차기 등)등이 개최. 4일까지.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 창립식=오후 3시 광주YMCA 백제실.

▲제 33회 남도문화제=전야제 오후 7시30분 목포시 평화광장. 2~3일 목포체육관. 21개 시·군 21개팀이 농악·민요·민속놀이 부문에서 경연.

▲녹천 고광순 의병대장 순국 100주년 추모대제=오전 11시 담양군 창평 녹천 고광순 의병대장 기념관.

▲제 7회 김남주 문학제=오후 7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포엠콘서트·시화전 등 개최.

〈2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 메주·곡성군 메론 품질특성 연구결과 최종보고회=오전 10시 광주시 남구청 상황실. 전남대 경영연구소 이용훈 연구원이 '곡성 메론·압촌 메주에 대한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발표.

▲제 2회 장애인 한마음 재활증진대회=오전 10시30분 담양군 추성경기장 특설무대.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 1천500여명 참석 예정.

▲제 4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제 509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남상도 한마음공동체 대표가 '문화전략을 통한 농촌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11회 여수 생선요리 향토음식 큰잔치=오후 6시 여수시 종화동 하멜 해양공원. 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낙지수제비 2006 나누기' '수산물생산지 해상탐방'등 체험행사·공연 등. 5일까지.

▲제 4회 대흥사 단풍축제=오후 3시 해남군 대흥사 특설무대. 고구마깎기 행사·단풍체험 걷기대회 등. 4일까지.

공연

▲제 76회 유진교향악단 정기연주회=1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김연주씨 지휘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서곡, 한경훈 경희대 교수의 창작교향곡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한 주제' 등 공연.

▲제 33회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2일(목) 오후 7시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전시

▲만화애니메인션학과 졸업작품전=11월3일까지 조선대미술관.

▲김광표 개인전=31일까지 광주서구문화센터 갤러리.

▲조대조각동문(백학) 회원전=11월1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남청회전=11월1일까지 상계갤러리.

▲이영식 개인전=11월1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손봉채전=11월 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비엔날레 기념 '손아유전'=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뉴스퀴즈

36. 1960~70년대 국내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했던 '박치기왕'이 최근 별세했습니다.

지난 1957년 역도산체육관에 입문하며 레슬링을 시작한 이 사람은 호쾌한 박치기로 거구들을 쓰러트리며 전 국민을 흥분시켰던 인물입니다.

지난 1963년 세계헤비급챔피언에 오르는 등 당시 최고의 인기와 전성기를 누리며 프로레슬링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고흥이 고향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김일 ②역도산 ③이왕표 ④안토니오 이노끼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45 >

▲ 지난주 정답

잠자리, 팽이, 종이배, 셔틀콕, 칫솔, 바늘, 다리미, 고추 열대어

찾아보세요 팽이, 고추, 열대어, 펜촉, 셔틀콕, 슬리퍼, 한국지도, 은행잎, 바늘

◀제비와 꽃뱀의 직업

어느 날 제비와 꽃뱀이 경찰에 잡혀갔다.
조서를 꾸미던 형사가 제비에게
"당신 직업이 뭐요?" 하고 묻자,
"고추장사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꽃뱀에게
"당신 직업은 뭐요?"
하고 물으니 꽃뱀이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
"예, 저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염규승·광주시 북구 오치동

강소영·광주시 남구 주월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일(음 9월 11일 甲午)

子 36년생 슬픔과 기쁨이 같이 나타난다. 4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60년생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84년생 공술에 병이 따르니 피하는 게 좋다. 행운의 숫자 : 11, 24

丑 37년생 악어도 수달에게 꼬리를 내어준다. 49년생 동료를 칭찬하면 공은 내게로 온다. 61년생 부부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면 사랑은 두 배다. 73년생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85년乙丑생 이성의 만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18

寅 38년생 애사가 생길수도 있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도 있다. 50년생 나에게 불편한 일은 모두가 내 탓으로 생각하라. 62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 74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 행운의 숫자 : 09, 21

卯 39년생 많은 지출이 발생하나 투자로 생각하라. 51년생 부모, 형제의 도움이 있고 새 생활이 시작 된다. 63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75년생 애인과 다툼은 있으나 원인은 사소한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16

辰 40년생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 52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는 않다. 64년생 아랫사람과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지마라. 76년생 소탐대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에게 승리의 여신은 미소 짓는다. 행운의 숫자 : 02, 29

巳 41년생 재물과 건강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53년생 일실일득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65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77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식교육이 더 중요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3, 30

午 42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54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66년생 직업과 돈, 남편, 자녀들까지도 조심해야 한다. 78년생 무리한 변화는 잘못이 따르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15, 27

未 43년생 불연이면 송사에 휘말리니 용서하며 지내라. 55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면 성취하리라. 67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 79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큰 재물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1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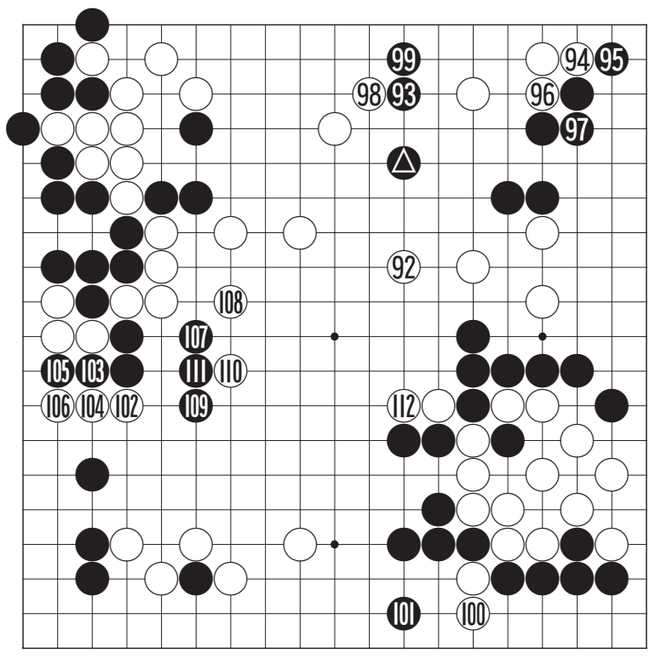
申 44년생 좋은 일과 연결될 기회가 생긴다. 56년생 협조자가 나오나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8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하라. 80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부부간의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23

酉 45년생 제사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57년생 도화기가 재발하면 망신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9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순한 일이 괴롭힐 수도 있다. 81년생 기상천외한 횡재수가 있고 노력대비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 04, 22

戌 46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8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을 아는 시기이니 행동하라. 70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하고 행하라. 82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정의 평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26

亥 47년생 예상치 못했던 실물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전후좌우를 살펴 가라. 71년생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83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대단히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0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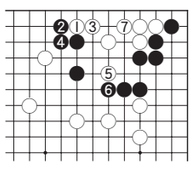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건곤일척의 승부수 6보(92~112)

白 유흥주 5단 〈KT전남본부〉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흑 ▲가 통렬한 양수겸장으로 상하의 백을 동시에 노리는 호착이다. 과연 어느쪽을 살려야 되는가. 유흥주 5단은 긴 고민 끝에 일단 한눈에 보이는 92에 두어 우변을 살리고 본다. 이러면 박광주 5단이 93으로 짓쳐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

유 5단이 94, 96을 선수했을 때만 해도 이 돌을 '참고도'처럼 살리려고 했던 듯 하다. 백 1로 붙여 늘면 7까지 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백의 유일한 보고였던 상변이 초토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바꿔 98에 두어 버리는 길을 택했다.

이제 흑은 우상귀 하나만 가지고도 백의 유일한 보고인 상변과 필적할 하고도 남는다. 유 5단도 비세를 절감하고 110까지 교환한 다음 112에 두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날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홍민표 LG배 4강 진출

홍민표 5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머셋팔레스호텔에서 열린 LG배 세계기왕전 8강전에서 중국의 구리 9단을 270수만에 백 5집 반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홍민표 5단은 이날 중국 랭킹 1위이자, 전기대회 우승자 구리 9단을 꺾음으로써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홍 5단은 초반 포석에서 구리 9단에게 밀리는 듯 했으나 중반 우변전투에서 승기를 잡았다.

반면 이창호 9단은 중국의 후야오위 8단에게 192수 끝에 흑 불계패했다. 홍민표 5단-대만의 저우쥔쉰 9단, 중국 후야오위 8단-조한승 9단이 격돌하는 준결승전은 내년 1월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65>

I'm not convinced at all

난 전혀 확신이 서질 않는데…

A: Let's decide on this coffee maker.
B: It's too expensive.
A: But it's much more convenient.
B: I'm not convinced at all.

A: 이 커피메이커로 결정하지.
B: 그건 너무 비싸네요.
A: 하지만 그건 아주 편리하잖아.
B: 저는 '전혀' 인데요.

decide on[upon] ~ : ~하기로 결정하다.
much more convenient : 훨씬 더 편리한
- 비교급(more convenient)을 강조하기 위해서 'much'가 앞에 왔다.
convince : ~에게 납득시키다, ~에게 깨닫게 하다
- He convinced me to do that.
(그는 내가 그것을 하도록 했다.)
= He persuaded me to do that.
= He talked me into doing that.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65>

ご無沙汰はお互(たが)い様(さま)です

오랫동안 소식 못 드린 것은 피차일반입니다

A: あのう、もしかして、田中さんじゃありませんか?
B: これはこれは、金さんじゃありませんか。こんな所で會えるなんて、奇遇(きぐう)ですね。
A: いろいろお世話(せわ)になったのに、ご無沙汰(ぶさた)しておりまして…。
B: いやいや、**ご無沙汰(ぶさた)はお互(たが)い様(さま)です。**

A: 저, 혹시 타나까씨 아닙니까?
B: 아니 이거, 김씨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만나지다니 뜻밖의 만남이군요.
A: 여러 가지 신세를 졌는데, 오랫동안 소식 못 드려서….
B: 아뇨 아뇨, 오랫동안 소식 못 드린 것은 피차일반입니다.

もしかして : 혹시 어쩌면
こんな所(ところ) : 이런곳
奇遇(きぐう) : 뜻밖에 우연한 만남
お世話(せわ)になる : 신세지다
ご無沙汰(ぶさた) : 오랫동안 격조한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83>

不怎么样

별로 좋지 않다

A: 你什么时候搬家呀?
B: 还没搬呢.
A: 你看这种装修设计怎么样?
B: 我觉得不怎么样, 没什么特点.
A: 你现在住哪?
B: 现在住在朋友家.
A: 你的朋友住在这附近吗?
B: 我觉得不怎么样.

服务 [fúwù] 서비스하다, 봉사하다
装修 [zhuāngxiū] 장식을 수리하다
不怎么样 [bù zěnmeyàng] 별로 좋지 않다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83>

離婚 (이 혼)

떼놓을 리, 혼인할 혼

고려(高麗)에서는 이혼(離婚)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고려의 이혼은 양쪽의 합의(合意)에 따라 결정되지, 조선(朝鮮)처럼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학대(虐待)한다거나,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경우가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집안일을 숨기거나 큰 흠이 있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관직에서 쫓겨나거나 유배(流配)에 처해지고, 또는 거주제한의 처벌을 받았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질투(嫉妬)를 심하게 했다고 하여 쫓겨나는 일은 없었다. 또 아들을 낳아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지 않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굳이 양자(養子)를 들이지도 않았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寡婦)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독신녀가 되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었으며, 재혼(再婚)한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하여 차별받지 않았다. 고려에서는 여성의 별도 재산을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데리고 온 노비와 재산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다. 상속(相續)도 남녀 균등상속이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